

여수시, 전라남도장애인 체육대회 상징물 '선정'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등 5종...4월 4일부터 3일간 진남경기장서



오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 26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상징물이 결정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제출된 상징물 공모 응모작을 심사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5종의 상징물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엠블럼은 전남의 영문 'J'와 여수 삼발마스크를 이용 휠체어를 타고 역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선정됐다.

여수시와 전남도의 캐릭터인 '구키'와 '남도'가 성화를 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은 마스코트로 뽑혔다. 포스터 선정작은 힘차게 끝내며 환호하는 육상선수를 중심으로 각 종목의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했다.

입상자에게는 엠블럼 150만 원, 마스코트·포스터 각 100만 원 등의 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6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상징물을 공모했다.

주제는 전남의 정체성, 국제해양관광 중심 여수 실현 의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심사는 이달 18일 진남스포츠헬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사 위원회는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한국문인협회 여수시부,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전남대학교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상징물을 대회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 보길권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2021년까지 100억원 투입

완도군 보길도 일원이 명품 어촌 테마마을로 조성된다.

완도군은 22일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보길권역 거점개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명품 어촌 테마마을 시범지구'와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보길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예

리 일원 등 천혜의 경관자원과 어촌의 매력을 특화한 곳으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보길권역이 해수부로부터 '명품 어촌 테마마을'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추가로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보길 예술섬 여행학교와 섬 문화갤러리, 섬 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예술리와 예약도를 잇는 섬 브릿지(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어부 사시사 탐방로 연장, 전망대 조성, 문화경관 복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보길도의 경관을 특화한 정원예술섬으로 가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개발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500만 관광객사대를 이끌 해양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총 320대...관리기 110만원·소형농기계 200만원

여수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밭작물 관리기 120대, 경운기·이앙기·곡물건조기 등 소형다목적 농기계 200대 등 총 320대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관리

기는 110만 원, 소형농기계는 70~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자격은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다. 최근 5년 이내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받은 농업인은 제외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이달 초 경지 면적, 친환경 인증 실적, 농기계 보급률 등을 검토해 읍면동별 배정 불량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영농기 이전에 구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자연재해 대비 위험수목 대대적 정비

무안군은 자연재해 대비 국공유지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급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조사·접수된 자연재해 내습 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옥 주변의 정비대상 위험수목에 대해 현장 확인과 내부 심사를 거쳐 정비대상 수목에 대해서는 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정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 사업에서는 사유지 내

낙엽이나 낙과, 그늘 등 단순 불편 대상 수목까지 무분별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수목의 정의와 정비대상 범위를 따로 명시하였다.

이울러, 제거된 수목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을 투입해 팔각으로 만들어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군은 이를 위해 크레인 등 대형장비 임차비용으로 2억5천만 원의 예산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 명품 자전거 라이딩 코스 소개합니다"

여수시가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명품 해안 자전거도로' 홍보에 나섰다.

제작부수는 1만2000부로 관광객과 자전거 동호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여수의 3개 자전거 코스와 오동도, 진남관, 이순신광장, 돌산대교 선소 등 주변 관광 명소 자료가 수록됐다.

1코스는 도심 속 여수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오동도~여자만 복촌 41.3km 구간이 소개됐다.

2코스는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만끽할 수 있는 오동도~화태대교 구간 25km, 3코스는 갯벌과 낙조가 펼쳐지는 금빛 향연이 있는 가사리 방조제~화양면 공정리 19.4km 구간이었다.

특히 1코스 중 여자만 구간은 붉은 저녁노을을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해안 자전거도로로 인소문이나 많은 동호회원들이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수에서 자연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소리면 죽림리에서 화양면 세포까지 18km의 해안 자전거도로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